

# “중기 공공조달 지원 ‘다수공급자계약’ 개선 필요”

**광주상의, 조달청에 개선안 건의 일부 규정 조달물자 특성 미반영 납품기한 짧아 행정절차 부담 커 “조달현장·기업현실 유연한 반영”**

광주상공회의소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일부 운영 규정이 조달현장과 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9일 광주상에 따르면 MAS 제도는 조달청이 복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

목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올해 5월 기준 총 1만2762개 기업이 91만3119개 품목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년도 공급 실적은 약 18조6000억 원에 달한다.

광주상의는 “MAS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영 규정은 조달 물자의 특성과 행정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동식화장실과 같이 건당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르는 고가 품목의 경우, 계약 후 실측부터 도면 설계,

승인,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납품기한이 45일로 제한돼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각종 증빙서류 제출과 내부 행정 절차로 인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커져 납품기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MAS 제도의 2단계경쟁 기준금액은 1억원으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단계경쟁은 기술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발주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조달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기술 경쟁보다는 저가 위주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광주상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한해 2단계경쟁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요기관이 동일 품목을 30일 내에 반복발주할 경우 2단계경쟁 회피로 간주해 발주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제로 한 기관의 서로 다른 부서가 상이한 사업 목적에 따라 발주를 진행하더라도, 기관 단위로 발주 금액이 일괄 합산돼

제한을 받는 사례가 많아 공급일정 차질, 행정 지연, 생산계획 혼선 등 다양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사업 목적이나 발주 부서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기준금액 합산 역시 기관이 아닌 사업 목적이나 부서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 건의는 공급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기관의 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MAS 제도가 조달 현장과 기업의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현대차, 美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2023년 ‘기아’ 이후 두 번째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 of 2025)’ ‘지도자(Leaders)’ 부문에 선정되었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 특파원, 에디터, 업계 전문가가 지명한 당해 후보 기업 가운데 타임지 기자들이 영향력, 혁신성,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지도자(Leaders)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물(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별로 나누어 일 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 20곳을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혁신자’ 부문에서 ‘기아’가 선정된 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으며 올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

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은 2024년 판매량 3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며 “한편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던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출시된 신차들이 연이은 호평 및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대차그룹을 ‘자동차 산업의 다크호스(Automotive dark horse)’로 언급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합산 판매량 723만 대를 기록하며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분야 상인 ‘세계 올해의 차(WCOTY)’에는 최근 6년간 다섯 차례나 선정되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해 오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올해 안에 누적 판매 3000만 대를 달성할 전망이다.

박소영 기자

## 한국은행 지역본부, 종합기획직원 채용설명회

내달 8일 광주전남본부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채용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우수한 지방인재의 한국은행 입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종합기획직원(G5)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채용설명회는 오는 7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26)에서 열리며, 별도 신청없이 참가 가능하다. (문의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062-601-1113, 1105)

2023년 도입돼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종합기획직원(G5) 채용설명회는 본부 채용담당자로부터 직접 한국은행의 역할, 전형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한

국은행 입행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행이 운영 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지역전문 부문 채용 등 지방인재들에게 유익한 채용 정보가 중점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제 1178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5 6 11 27 43 44	1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3억9161만원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374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6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 ‘최고등급’ 획득

외국인투자유치 개척 최대 성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등도 인정

광주경제자유구역청(광주경자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주경자청은 내부 조직문화 혁신과 현장 중심의 외부 소통을 통한 투자유치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주경자청은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에서도 개척 이후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입주기업과 외국기업 간 합작 투자유도, 전략적 유치 활동을 통해 총 1억326만달러의 외국인 투자신고와 17만달러의 도착 금액을 달성해 광주지역이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또 활발한 글로벌 투자협약(MOU) 체결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투자 흐름이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투자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적 적극 반영하는 방식은 기업 친화적인 행정환경 조성으로 이어졌으며, 전년 대비

기업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는 수직적 조직문화를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이 추진됐다. 불필요한 회의 간소화, 직원 소통 제도화,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선석기 청장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내부 혁신, 기업 만족도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모두의 헌신 덕분”이라며 “글로벌 투자와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 광주신세계, 장마철 맞아 다양한 제습기 선봬

(주)광주신세계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다양한 제습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본관 8층 LG전자에서는 LG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를 판매한다. 듀얼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전력 소모는 줄이고, 약풍 기준 32데시벨의 저소음 성능으로 일상 속 쾌적함을 더한다.

의류건조 모드, 저소음 모드 등 맞춤형 기능도 갖춰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용해 활용할 수 있다.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6년 약정 가전 구독시 월 요금은 2만3900원이다.

광주신세계 LG전자에서는 제습기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9만4000원 상당의 신발건조 키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7월까지 실시한다.

이밖에도 광주신세계 삼성전자, 린나이, 쿠쿠, 로라스타, 루메나 매장에서도 다양한 제습기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윤준명 기자



(주)광주신세계 8층 LG전자 매장에서 직원들이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삼성전자, 부산서 라이프스타일 전시 참가

삼성전자는 지난 26~28일 부산 해운대 복합문화공간 에케에서 열린 라이프스타일 전시 ‘2025 행복작당 부산’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여름을 사는 법-삼성 AI

가전으로 완성하는 쾌적한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비스포크 AI 가전을 소개했다.

특히 잦은 빨래가 필요한 여름에 실용적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최적화된 온·습도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의 시연과 체험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또 26~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디자인페스티벌(BDF)에도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비스포크 AI 가전을 전시했다. 박소영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